

지역 소식통

김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점검반을 구성,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중개업소 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중개가 의심되거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월세 계약이 많은 아파트 및 원룸 주위, 민원 발생지역 공인중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인터넷 부동산 매물 표시·공고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거래계약 시 관련 서류 교부·작성 여부 확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사항, 자격증 양도 대여 및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스마트 축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0억원을 축산 농가에 지원한다.

시는 '2024년 축산시설 현대화 및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으로 140여억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축사 신축 3능가와 산란계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에 따른 케이지 변경 1능가, 시설장비 구입 2능가 등 총 6능가다.

사업별로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131억원(융자 104억원, 자부담 27억원)에 융자80%, 자부담 20%로 융자 금리는 사업 규모에 따라 1~2%로 이고,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은 9.2억원(국비2.7억원, 융자4.6억원, 자부담 1.9억원)에 융자 금리는 2%이며, 축사 및 축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와 축사 내외부 환경 조절장비 등 원적 재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촉구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가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한 관할 결정을 촉구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15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시민연대 위원과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개통된 지 3년이 넘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고, 이로 인한 지역 간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1월 개통됐으며, 작년 2월 첫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1년 여 동안 5번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챔버리 사태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이 또다시 미뤄지려는 움직임에 대한 김제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전달했다. 새만금 1~4호 방조제 관할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당시 향후 새만금에서 매립지별로 관할 결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것을 이미 예견됐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 고속도로가 김제를 통과해 2호 방조제로 가는 접근로가 생기고, 만경강과 동진강 흐름에 따른 자연 경계 기준과 매립 이후 김제, 군산, 부안의 해양 접근성 형평성을 고려해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 관할이 가장 합리적인 관할구도라는 점을 대법원은 2013년과 2021년에 2번씩이나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에서 시작해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2420번지 새만금 2호 방조제까지 연결되어 있어, 시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행정구역일 뿐만

아니라 그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새만금 전체지역의 관할구도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김제시 관할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한 동서도로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여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나 재난대비·치안확보를 위한 CCTV하나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강병진 위원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작년 11월에도 김제시민 1,000여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이곳에 같은 이유로 다시 오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향후 남북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결정도 이어지고 있고, 관련 지자체 간에 갈등 해소와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여섯 번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반드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촉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지평선제2일반산단 조감도.

(사진=김제시청 제공)

지평선 제2일반산단 조성사업 보상협의회

김제시, 이주대책 등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과 이주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김제시는 15일 시청 2층 상환실에서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평선 제2 일반산단은 약 1,97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약 88만2,272㎡ 부지에 식료품,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12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가 100% 분양 완료됨에 따라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을 위해 작년 11월에 보상계획공고와 12월에 보상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월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토지소유자 4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위원장인 이찬준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상액 평가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보상 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부시장은 "법적 기준 내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노력하겠다"며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 요구 시 언제든지 보상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보상과 이주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김제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수동아리·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시민의 학습역량 강화, 유기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김제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우수동아리 공모 대상은 김제시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로 성인 10인 이상 구성, 월 2회 이상 지속적인 학습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이며, 12개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프로그램 공모 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평생교육 기관으로 △평생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주말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개소를 선정·지원할 예정

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특화할 수 있는 우수 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해 '고른 학습기회 제공'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배움터 조성을 구현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관·단체·동아리 간 네트워크 형성과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 자연스럽게 학습을 즐기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평생학습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기관·단체, 동아리는 시 홈페이지(<http://gimje.go.kr>) 고시/공고와 시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http://e.gimje.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27일까지 시 교육문화과(☎540-382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한다... 특례보증 시행

전북신보-농협-전북은행-하나은행 협약, 최대 5000만원 지원

완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농협은행-전북은행-하나은행과 함께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전날(14일) 완주군은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NH농협은행 김대호 전주완주시군지부장, 전북은행

서두원 부행장, 하나은행 우승구 광주 전북영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보증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특례보증은 완주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영세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다. 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5,000만원을 농협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이 각 5,000만원을 출연해 총 3억 원의 출연금의 12.5배인 37억5,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3개월 이상 경영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이자 3%를 3년간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이달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산지점(063-230-3347/상관, 이서, 구이)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덕진지점(063-230-3385/상례, 봉동, 용진, 소양,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유선을 통해 상담 예약하면 된다.

유 군수는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기 침체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보증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농협은행-전북은행-하나은행과 특례보증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